

귀천(歸天)을 노래하자



기인(奇人)이요 시인(詩人)인 천상병이 사람들을 울리고 웃겼다. 그리하여 이 나라의 유명(有名)한 인사가 되었다. 그 때 이 사람도 그의 시 귀천(歸天)을 읽은 적이 있다. 이 사람도 한얼나라에 돌아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나이가 되고 보니 천상병의 시구가 머리에 떠오른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는 시구가 기쁘게 다가온다. “나 한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하였더라면 명실명실 춤이 나올 것만 같다. 이 나라에도 여러 종교의 수많은 신앙인들이 있건만 천상병 시인만한 믿음도 만나기가 쉽지 않다. 한얼님께로 돌아가자는 신앙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더 오랫동안 잘 살게 하여달라는 이른바 기복신앙인이 많다. 남이 믿는 종교를 험담하기를 삼가는 류영모인데, 조선조 말기에 이 나라에 전도된 기독교조차 서양무당이 될 것 같아 서운하기 그지없다고 탄식하였다.

“요새 불교 기독교에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통(神通)이라는 기이한 것을 구한다. 종교가들도 제법 무슨 신비한 능력이 있는 체 한다. 그렇게 하여 많은 사람이 입신(入信)하게 되면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으니까 제법 영적인 능력이 있는 것처럼 언행(言行)한다. 그러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으면 많은 사람에게 전도한 게 되니까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요새 종교란 게 다 이렇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서는 교육적인 의의(意義)가 있다고 생각하고 말한다. 그런데 사람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좋다고 다 다익선(多多益善)이라 하는데, 많이 모이면 도리어 허식과

술주정과 난장에 빠지고 만다.”(류영모 『다석어록』)

류영모의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었다. 안양교회에 오랫동안 원로 목사로 시무한 설삼종이 고백하기를 샤먼 노릇을 해야 신도들이 모이니 목사들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샤먼 노릇에 유혹을 받는다고 말하였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천상병 시인 같은 신앙을 가졌다면 샤머니즘이 얼씬도 못할 것이 아니겠는가? 천상병은 삶의 목적이 하늘로 가는데 있는 것이지 땅에서 잘살자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지위, 재물, 명예를 서로 차지하려고 전력투구로 겨루고 다투고 있다. 그래서 좀 성공한 이들은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거기에 밀린 이들은 신경불안, 정신분열로 자살을 하니 이 나라가 단군 이래 경제적으로 가장 잘살게 되었으면서도 OECD 나라 가운데 자살 일등국이 된지 10년이 넘게 이어오고 있다. 이 나라가 남의 나라에 식민지가 되었다가 독립하여 모범적인 민주정치를 꽃피워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고 있으며, 6.25 전쟁으로 파멸하여 UN의 원조로 겨우 연명한 최빈국에서 이제는 다른 후진국을 돕기도 하는 경제 재건의 본보기가 되었다. 그런데 지금 정신과 병원이 성시를 이루고 자살 일등국의 오명을 얻다니 이 나라에는 진리도 도덕도 없단 말인가. 그래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며 귀천을 노래한 천상병이 그립다. 이 겨레가 한 목소리로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를 노래하고 싶다. 핵 불장난으로 잘난 체 하고 싶어 안달이 난 북한 집

권자의 귀에까지 들리게 힘차게 노래하고 싶다. 태자의 자리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걸식하는 구도자가 된 석가, 내 나라는 땅의 나라가 아니라고 한 예수의 진리 정신이 바로 이것이다.

레프 톨스토이는 이 세상 살림이란 하늘나라로 돌아가는 기차를 타려고 기차오기를 기다리는 기차역 대합실과 같다고 하였다. 기차역을 혼자 다 차지하려고 욕심부리는 것은 지극히 어리석은 생각이라고 말하였다. 누구나 내 차례가 오면 천국행 기차로 떠나야 하기 때문이다. 옛 사람으로는 석가와 예수를 가장 좋아하고 현대인으로는 레프 톨스토이와 마하트마 간디를 가장 좋아한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이 지구 위의 인류문명이라는 잔치에 다녀가는 것은 너나 나나 다름없이 미련을 갖지 말아야 한다. 이 땅에서 자꾸 더 살자고 애쓰지를 말아야 한다. 이는 자연스런 것으로 한얼님의 뜻이다. 이를 잊지 말고 있어야 한다. 이를 잊지 않고 있으면 죽을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 그저 사는 게 좋고 죽는 것은 싫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 곳은 잠깐 잔치에 참여한 곳이지 본디 여기서 산 것도 아니요 늘 여기서 살 것도 아니다. 진리를 추구하는 형이상학은 이 세상을 초월하자는 것이다. 이 곳 잔치만 살펴 보고 있을 수 없으니 이를 생각으로라도 좀 초월해 보자는 것이다.

목적이 삶에 있다면 그 참 삶이란 하늘에 있지 결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다. 참 뜻은 영원 무한한 열이요 빔인 없이 계시는 한얼님에게 있다. 여기 이 환상(幻像)계에 있지 않다. 세상 사람들은 거의가 세상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하늘(한얼님) 나라에 가는 일을 잘 해야지 세상 나라를 잘 다스려야 한다는 것은 기어코 헛일밖에 되지 않는다. 사람들은 먼저 하늘에 해야 할 것을 땅에다 먼저 한다. 사는 목적을 하늘에 두지 않고 이 세상에 둔다. 이 세상에는 우리가 가질 목적이 없다. 이 땅에서 참(진리)이라고 한 것은 상대적인 참이지 온전한 참이 아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머리를 위로 하늘에 두고 몸을 곧게 세워 하늘에 가까우려고 애를 쓴다.” (류영모 『다석어록』)

함석헌이 천안(天安)시 봉명동에 씨알 농장을 마련하여 열명 가까운 젊은이들과 함께 오로지 한얼님만 머리에

이고 한얼님 뜻대로 사는 귀천(歸天)의 정신을 기르고 시골에 가서 이마에 땀 흘리며 바르고 부지런하게 사는 귀촌(歸村)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였다. 그리하여 1955년 씨알농장에 모임을 열어 스승 류영모, 무교회의 송두용, 서울농대 류달영, 헌신구를 강사로 초빙하였다. 뒤에 함석헌의 사위가 된 서완근을 비롯한 많은 젊은이들이 참석하였다. 귀천과 귀촌이 일치해야 한다고 처음으로 생각한 이는 러시아의 드호브르 교파의 영향을 받은 레프 톨스토이다. 세계적인 대문호인 톨스토이는 시골 농부가 되어 농사를 했다. 톨스토이의 영향을 받은 이가 아프리카 남아공에서 인권운동을 하던 마하트마 간디였다. 간디는 그 곳에서 인권운동으로 감옥에 간 이들의 가족을 위하여 톨스토이 농장을 세워 농사를 짓고 가족들을 구호하였다. 그 때 마하트마 간디는 러시아에 사는 톨스토이에게 편지를 보내 문통을 하게 되었다. 다석 류영모는 당시에 일본의 식민지 치하에 남강 이승훈이 평북 정주에 세운 오산학교 교사로 봉직하고 있었다. 그 곳에 춘원이광수가 다석보다 6개월 먼저 오산학교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었다. 이광수가 일본에서 출판된 톨스토이 전집을 한 질을 가지고 와 류영모도 읽게 되었다. 류영모는 서울의 일본어학당에서 일본어를 배워 일어에 능통하였다. 톨스토이는 세상이 다 알다시피 예수는 존경해도 교회는 경멸하였다. 한마디로 줄여서 말하면 예수의 가르침은 마태복음에 실려있는 산상수훈이 그 초석이 바울의 교의가 아니라는 주장이다. 이 주장이 톨스토이의 저서 『교의신학 해부비판』에 있다. 그래서 톨스토이는 카톨릭 보다 덜 보수적이라는 동방교회에 속하는 러시아 정교로부터 파문을 당하였다. 이광수는 이미 톨스토이의 『통일복음서』로 오산학교 교내 예배모임에 설교를 하였으며, 류영모는 정통 신앙으로 오산에 와서 전도까지 하고서 본인은 톨스토이의 영향으로 비정통 신앙으로 바뀌었다. 류영모는 자신의 입으로 톨스토이와 나는 비정통 신앙이라고 밝히기도 하였다. 쉽게 말하면 예수가 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한얼님이 신앙의 대상인 것을 예수가 가르쳤다는 것이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지극히 높은데 계시 완전한 아버지 한얼님께로 돌아가자는 게 예수의 인생관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이러한 인

생관을 갖고 싶다. 이런 점에서 독수와 나와의 관계가 있는 것이지 이 밖에는 아무 관계가 없다. 사람을 숭배하여서는 안 된다. 그 앞에 절을 할 것은 참되신 한얼님 뿐이다. 종교는 사람 숭배하는 것이 아니다. 한얼님을 바로 한얼님으로 깨닫지 못하니가 사람더러 한얼님 댜달라는 게 사람을 숭배하는 이유다. 예수를 한얼님 자리에 올려놓은 것도 이 때문이다.”(류영모 『다석어록』)

류영모에게 사람은 시골에 가서 이마에 땀 흘리면서 농사 짓고 살아야 한다는 귀촌 사상이 결정적으로 드러난 것은 일본 식민지 치하에 류영모가 물리학을 전공하고서 오산학교 교단에 서서 학생들에게 물리학을 가르치고자 일본 도쿄에 유학을 가서였다. 경신학교 졸업만으로는 일본 대학에 입시자격이 미달이라 인문계로 진학한 학생은 정칙(正則)학교에, 과학계로 진학한 학생은 물리(物理)학교를 다녀야만 하였다. 류영모는 물리학교에 입학하여 2년째 다니다 대학시험도 치르지 않은 채 집으로 돌아왔다. 실력이 모자라는 것도 건강이 나쁜 것도 아니었다. 톨스토이의 귀천과 귀촌 사상이 그 동기였다. 류영모의 가슴에는 귀천을 바로 하자면 귀촌을 반드시 해야 하고 귀촌을 바로 하자면 귀천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요지부동이었다.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시골에 가서 농사짓고 살 생각이니 대학학비로 주실 돈으로 농토를 사달라고 졸랐으나 거절당하였다. 너 같은 체격으로 무슨 농사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아예 두 번 다시 나한테 농사 이야기는 꺼내지도 말라는 것이었다. 류영모는 조선조가 멸망하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다. 조선조가 멸망한 까닭이 조선조의 유교가 공자(孔子)와 맹자(孟子)의 위민(爲民)사상이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양반사상으로 타락한 데 있다는 결론과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관존민비의 생각은 하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요 나라를 그르치는 것이 확실한데 내가 대학을 나와 월급쟁이에 만족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어떻게 되며 내 일생의 값어치는 어디에서 찾는가? 그러므로 나는 대학을 안 다닐 것이며 내 자식들도 대학을 보내지 않겠다고 다짐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 생각의 일부를 어록에서 찾을 수 있다.

“나는 대학을 반대하는 사람이다. 출세하여 대학교수가 되려는 것은 일하기 싫어서라는 것이 분명히 있다. 성경

에도 교만한 자가 일하지 않고 밥 먹으려 한다고 하였다. 나 편리(便利)한 것 생각하면 전체를 생각할 수가 없다. 개인의 편리한 것을 취하면서 나라를 생각한다는 것은 거짓이다. 지식을 취하려 대학에 가는 것은 나 편하고자, 나 대우받자는 생각에서다. 관존민비(官尊民卑)의 양반들의 귀족의식이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집권자의 자리에 앉으면 무엇 하나? 그런 사람이 무슨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을 생각하겠는가? 몸뚱이를 위해서는 지식을 찾지 말아야 한다. 먹기 위해서는 땅을 파서 농사를 지어야 한다. 한얼님에게 괴임(사랑)받아야 참 괴임이지 남(사람)에게 괴임받는 것은 꺾임받는 것이다. 그러다가 뒤집히면 그게 치욕이 된다. 마음에 잔뜩 하고 싶은 게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마음이 깨끗이 빈 마음이 되어야 한다. 빈 마음은 곧 거기 아버지 계신 데에 간 것이다. 거기와의 거리는 떨어진 게 아니다.”(류영모 『다석어록』)

류영모의 결심은 한얼님의 뜻이었다. 아들의 귀촌을 반대한 아버지가 별세하자 그 당시는 서울 가까이 있는 오지 중의 오지인 북한산 비봉 아래(구기동 150)로 귀촌하였다. 류영모의 자식 3남 1녀는 수재들이었으나 대학 문 앞에도 못 가보았다. 그것이 현모양처인 김효정(金孝貞) 부인과 불화의 원인이 되었다. 류영모의 귀천 귀촌 정신이 아들 류자상이 강원도 방림 대미산으로 귀촌케 하였다. 함석헌이 천안 씨알농장 강원도 안반덕 농장으로 귀촌케 하였다. 류달영이 의대에 가라는 어른들의 바람을 꺾고 이 나라 국민의 8할이나 되는 농민을 위한 길인 농대를 택하는 동기가 되었다. 농대 교수로 재직하면서도 수원지지대 고개 아래 농장을 마련하여 농사를 했다. 류달영이 군사정부를 반대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농촌을 위한 일이라 재건국민운동본부장 자리를 맡았다. 그리하여 농촌을 위해 일한 사람가운데 으뜸으로 손꼽히게 된 것도 크게 보면 귀천 정신과 귀촌 정신의 아름다운 결실이라 할 것이다. 지금 이 나라는 큰 모순에 빠져 있다. 농촌에는 젊은이라고는 없어 힘쓰는 젊은이의 일손이 필요하다. 그런데 정부에서는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하나 속수무책이다. 그리고 중소기업에서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적지 않게 와서 일하고 있다. 이 모순과 갈등을 어떻게 풀 길이 없다. 정부에서 잘못 풀면 나라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다.

인생의 근본처지에서 나를 돌아보고 한얼님 사랑인 귀천(歸天)의 진리정신과 이웃사랑인 귀촌(歸村)의 안애정신으로 풀어야 한다.

“우리는 날 때부터 사형선고를 받고 있다. 형무소에서 죄수들 사형 집행하는데 모르는 결에 끌고 가서 서 있는 마루청이 떨어지면 목이 졸려서 죽는다. 우리도 그와 같이 마루청이 떨어지지만 않았지 언제 마루청이 떨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형편에 있다. 이 사실을 잊으면 쓸데 없는 잡념에 시달리고 욕망에 사로잡히고 교만에 놀아나게 된다. 그러므로 죽지 않겠다고 야단쳐도 안되고 또한 죽으면 끝이라고 해도 안 된다. 몸이 죽는 것을 확실히 인정하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내 몸이 죽게 되면 내 몸과 맘을 의지해 머물던 한얼님이 주신 열이 한얼나라로 간다고 믿는 것이다. 열나는 한얼님이 보내신 열이 내 맘속에 머물고 있다. 이것이며 없는 한얼님의 은총이요 사랑이다. 짐승인 제나(自我)로 죽고 한얼님 아들인 열나를 깨달은 생명(生靈)은 이상하다. 두발로 거닐어 이상하고 머리를 곳곳이 위로 두고 다닐 수 있으니 이상하고 나를 생각하니 이상하고 생각을 생각하니 이상하다. 여편네와 자식들 먹일 것만 생각하면 이상한 것 하나도 없다. 나와 무한영원(한얼님)과의 관계를 생각하면 이상한 느낌이 들면서 내가 열나의 생명인 생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위로(한얼님) 올라가겠다는 한 말씀을 받들고 머리 위에 존중한 한얼님을 이고 무겁고 괴로운 삶을 우리는 이겨나가야 한다. 열나의 혼명(魂明)을 찾아가는 것이 삶의 목적이요 천효(天孝)이다.”(류영모 『다석어록』)

천상병은 귀천만 말했다 귀촌은 언급하지 않았다. 예수와 석가도 마찬가지다. 그대신 예수 석가는 동가식 서가숙(東家食 西家宿)하면서 노숙자처럼 살다 갔다. 천상병도 천원짜리 구걸을 하였으니 아주 실력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열나의 깨달음에 대해서는 말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천상병을 깨달음 없는 부처님이라 하기도 한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 이슬 더불어 손에 손잡고 /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 노을 빛 함께 단 둘이서 / 기슭에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천상병 『귀천』)

‘손에 손잡고’와 ‘단 둘이서 기슭에 놀다’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나타낸 것이다. 사실은 아내(문순옥)보다 천상병이 먼저 하늘나라로 떠났다.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그리고 ‘노을 빛 구름 손짓하면’은 죽음을 상징하고 은유하는 말이다. 옛 사람들이 제삿날에는 죽은 이들이 다녀가는 것으로 알듯이 눈에는 안보여도 사람의 실체가 하늘나라에서 땅나라로 왕래하는 것으로 알은 것 같은 수준의 생각을 지닌 것 같이 보인다.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도 그런 생각을 보여준다.

천상병의 미숙한 신관은 『하나님은 어떻게 탄생했을 까?』에서 뚜렷이 보여준다.

“하나님이 탄생하기 전의 우주는 완전한 무(無)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무가 결정(結晶)하여 유(有)가 되었을 것이고, 그 처음의 유(有)가 하나님이었을 것이다.”

생사(生死)를 초월하고 유무(有無)를 초월한 한얼님인데 한얼님이 무(無)의 정기(精氣)가 결정(結晶)하여 최초의 유(有)가 하나님이라니 할말이 없다. 류영모는 이렇게 말하였다.

“한얼님은 어디에 있다면 한얼님이 아니다. 언제부터 있었다고 하면 한얼님이 아니다. 언제부터 어디서 어떻게 생겨 무슨 이름으로 불려지는 것은 한얼님이 아니다. 가장자리 없는 무한영원의 우주인 허공(무극)이 무수한 천체(별)인 물질의 유한 우주를 품속에 품고서 내었다 거두었다 하는 이 전체 하나(절대)가 한얼님이시다. 존재하는 것 한얼님 뿐이다. 물질의 개체는 있어도 없다. 전체의 부속물에 지나지 않는다. 내가 없이 계시는 한얼님을 느끼는 것은 사실대로 생각대로 고백한다. 한얼님이 나에게 사람의 사명(使命)을 주신다. 한얼님의 뜻이 담긴 열을 주신다. 그 열이 사람의 영혼인 영원한 생명이다. 한얼님의 뜻은 한얼님을 생각하다 한얼님에게로 돌아오는 사명이다. 그것이 한얼님의 아들임을 깨달아 한얼님의 아들 노릇을 하라는 사명이다. 아마도 예수 석가도 이것을 느낀 것 같다. 예수는 아버지라 부르고 석가는 ‘닐바나’라고 불렀을 뿐이지 하나이다. 한얼님(닐바나님)은 온 우주이시며 무주의 임자이신 큰나(大我)로 참나(眞我)이다.”(류영모 『다석어록』)

